



OPP 및 CPP 필름 동향

Market Trend of OPP Film&CPP Film

최근 수년간의 경기불황 여파는 포장용 필름 업계도 비껴가지 않고 오히려 더욱 힘든 상황으로 만들고 있다.

국내경제가 장기 침체속에 원화가치가 상승하고 유럽 및 중국 등 연이은 FTA 체결로 인한 가격 경쟁력 약화, 수급 불균형 등 OPP, CPP 필름시장에는 경기회복과 소비증가가 이루어지기만을 바라고 있다.

갈수록 악화되는 상황의 바닥이 어디인지 가늠하기 어렵고 경제성장도 최악의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어 우리나라 포장산업, 특히 연포장산업의 앞날을 예상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분명한 것은 앞으로 더욱 상황이 나빠질 것이라 판단되는 대다수의 의견인 만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동안 꾸준한 성장속에 기술발전을 이루어왔던 포장산업이 수년간의 장기불황이 지속되고 있는데 국제정세의 불안과 원자재 수입가격의 인하 등 악재가 계속되고 있다.

여기에 국내정치, 경제의 불안이 겹쳐 경기체감온도는 더욱 낮아질 전망이다.

또한 농산물의 불안한 가격변동과 공산품의 상승, 공공요금의 인상이 잇따르고 소비자들은 불안심리로 인한 소비억제 등 경기 개선요소들

은 위축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연포장의 대표적인 원자재인 OPP, CPP필름 시장은 경기부진속에 신규 증설로 인한 공급과잉 현상을 빚어내고 수입 저가 제품들의 대거 유입으로 가격경쟁이 치열해 지고 업체간 출혈 경쟁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OPP Film의 성형 원리는 열기소성 고분자를 T-DIE로 용융 압출시켜 SHEET를 형성한 후, 이를 가열롤을 이용하여 종방향(기계방향)으로 4~5배 연신하고, 이를 다시 TENTER 내에서 열풍을 이용하여 횡방향(기계반대방향)으로 8~10배 연신하여 제품을 얻는 가공법이다.

우리나라의 OPP 필름 시장은 국내 최대 생산능력을 갖고 있는 대림산업(주)이 올해 1개 라인을 증설하여 생산능력을 80,000톤이상으로 늘려 수출물량을 충족시키겠다는 계산이지만 본격 가동되는 하반기부터는 내수시장에서의 공급 과잉현상으로 가격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대림산업(주)의 4개라인에서 수출이 40,000톤, 내수 25,000톤 등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하반기 생산량의 변화에 따라 공급량이 조정될 전망이다.

(표 1) OPP 필름 생산판매 현황 (단위 : 톤/년)

업체명	라인수	생산능력	공급량	
			수출	내수
대림산업(주)	4	80,000	40,000	25,000
(주)삼영화학	4	45,800	4,800	32,000
울촌화학(주)	2	36,000	4,000	32,000
JK머티리얼즈(주)	1	12,000	0	11,400
(주)필맥스	3	28,000	4,142	15,048
(주)화승인더스트리	3	30,000	9,000	14,000

설비증설의 경우 수출이나 내수의 공급 물량이 늘어날 경우 이루어지지만 현재 상황은 이 두 요소가 주춤하는 상태의 증설이어서 과잉공급을 초래하고 경쟁을 초래해 시장의 어려움이 가속될 전망이다.

울촌화학은 지난해 3라인을 가동했지만 올해에는 2라인을 가동하고 있다. 생산능력면에서는 약 2,000톤이 줄었고 내수와 수출도 물량이 감소했다.

이는 최근의 경기상황에 대비하여 생산능력을 조정하고 판매량 감소에 따른 대응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신규 아이템 개발, 수출시장 확보를 위해 주력하고 있어 경기호전과 판매처의 확대가 이루어지면 생산 및 공급능력을 언제든지 확대할 수 있는 상황이다.

(주)삼영화학도 생산능력을 확대 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영화학은 생산라인을 증설하고 생산능력을 확대를 통한 내수와 수출의 비중을 높여나간다는 계획이지만 내수 비중이 많은 만큼 늘어난 물량을 내수에서 소화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공급과잉으로 인한 경쟁을 불가피할 전망이다.

(주)화승인더스트리는 지난해보다 수출 및 내수에서 떨어진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모든 업체들이 내수부진에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 국가들의 시장 잠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수출 비중이 높은 화승인더스트리가 해외시장에서의 거래처 수성과 신시장 개척이라는 어려운 직면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지가 생산물량의 소진이라는 과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전망이다.

(주)필맥스는 지난해와 큰 변동없는 생산능력과 공급능력을 보이고 있으나 최근의 경기불황으로 인한 수요감소에 어려움을 겪기는 마찬가지이다.

내수의 비중이 높은 필맥스는 수출을 늘려 활로를 모색하고 있지만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며 내수 역시 줄어드는 현실을 타개하기가 녹록하지만 않다.

JK머티리얼즈(주)는 1개라인에서 12,000톤을 생산하여 전량 내수에 공급하고 있다.

지난해에 비해 내수 물량이 증가하여 다른 업체들이 감소를 보인것에 비하면 약진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전체적으로 지난해에 비해 1개라인이 늘어 공급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수요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저가 수입제품의 대량 유입으로 인한 이익률 감소로 이어져 OPP필름업체가 심각한 몸살을 앓고 있다.

여기에 수출시장에서의 경쟁력 약화와 물량감소, 내수경기의 침체로 소비둔화가 지속되고 단품, 소포장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CPP필름시장도 OPP와 큰 차이가 없이 어려



특 집

움을 겪고 있지만 공급 물량이 미미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숨통이 트이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CPP필름 시장이 확대되어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므로 근본적인 어려움이 해소되기는 힘들다는 평가이다.

CPP필름은 (주)유상이 지난해에 비해 1개 라인이 늘어나 생산능력이 15,600톤으로 늘어났고 수출 5,400톤, 내수 2,400톤이며 일부는 자체 소진하고 있다.

지난해에 비하면 수출과 내수 모두 조금씩 늘어난 상황이지만 판매증가에도 불구하고 판매 이익은 감소해 더욱 힘든 상황이다.

삼민화학공업(주)는 3라인에서 12,600톤을 생산 지난해보다 생산량을 줄였다.

전량 내수 판매를 하고 있는 삼민화학은 국내 대형 유저 확보와 수출시장 확보의 어려움으로 지난해보다 약간 줄어든 공급현황을 보이고 있다.

공급량을 늘리기 위한 다양한 자구 노력을 보이고 있지만 침체된 시장에서의 활로를 뚫기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주)성일화학은 3개라인에서 12,000톤을 생산하여 지난해보다 생산능력을 크게 늘렸다. 수출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수에서의 공급 확대가 이루어진 결과로 볼 수 있다.

울촌화학(주)은 지난해보다 생산량을 줄였지만 수출과 내수에서 판매량이 조금씩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다.

아시아시장의 적극적인 공략과 기능성, 신제품 개발로 인한 영향으로 분석되지만 시장상황을 눈에 띄게 변화시키는 수치는 아니다.

(주)필맥스나 (주)삼영화학은 지난해와 별다른 변동없이 수요와 공급을 유지하고 있지만 경기불안의 잠재요소와 저가 외국제품의 유입으로 인한 어려움은 지속될 전망이다.

OPP 및 CPP 필름업체들이 수출확대와 품질경쟁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외국산 저가 제품의 유입이 가속화되면서 내수는 물론 수출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을 극복하기 위한 자구 노력이 어느때보다도 절실한 시기이다.

이런 상황은 올해는 물론 내년까지도 경기전망이 어두워 필름업체들이 새로운 시장 개척과 기능성 제품의 개발로 수요처 발굴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업계에 드리운 그늘이 더욱 길어질 전망이다.

필름업계의 부진은 장기간 계속되는 경기침체를 원인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유저들의 가격인하와 스낵, 건과류의 수입제품 증가, 소비감소, 외국 저가 제품의 공격적인 판매전략이 더해져 상승곡선이 언제쯤 이루어질지 감을 잡을 수 없는 상황이다.

내수 부진의 여파가 수출시장에서도 계속되고

[표 2] CPP 필름생산 판매 현황 (단위 : 톤/년)

업체명	라인수	생산능력	공급량	
			수출	내수
삼민화학공업(주)	3	12,600	1,000	12,600
(주)삼영화학	1	5,400	2,400	3,000
(주)성일화학	3	12,000	30	8,500
(주)유상	6	15,600	5,400	2,400
울촌화학(주)	1	10,000	1,500	8,500
(주)필맥스	2	9,400	1,021	5,034

있다. 내수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수출 다변화를 꾀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걸림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여기에 국내 업체들의 경쟁을 부추기는 수출전문업체들의 전략으로 인해 국내 업체들이 외국업체와의 경쟁은 물론 국내업체간 경쟁도 벌여야 하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특히 수출 전문기업들은 국내업체간 경쟁을 부추겨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국내 시장 질서마저 위협하고 있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올해에는 중국과의 FTA도 타결될 예정이어서 국내 기업에는 커다란 장애가 될 전망이다. 여기에 원화강세, 원자재 수입가격 인하 등 악재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올해에는 국제적인 정세불안과 국내 정치, 사회환경, 경기불안이 장기간 계속될 전망이고 공급과잉에 따른 경쟁, 재고 소진을 위한 가격 경

쟁력 약화, 소비둔화 등 필름업계가 최악의 상황을 보내고 있지만 이 어려움이 언제 해소될지 알 수 없다는 것이 더 큰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

필름생산업체들이 품질향상, 생산성향상 기술 개발을 통해 원가를 절감하고 소비가 줄고 있는 식품용 필름을 수출과 타 산업용 소재로 확대하고 있지만 점차 줄어들고 있는 물량을 대체하기에는 역부족 상황이다.

어쩌면 필름업계가 급격한 변화의 기로에서 어떤 선택과 판단으로 경기의 흐름을 반전시켜 시장 확대로 갈지가 과제로 남는다.

최선의 노력으로 곳곳에 산재해 있는 어려움을 풀어 나가고 있는 필름업계가 반전을 위한 실타래를 잘 풀어 활성화되고 다른 산업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산업으로 자리잡길 기대해 본다. ☐

사단법인 한국포장협회 회원가입 안내

물의 흐름이 자연스러운 것은 물길이 나아있기 때문입니다.

포장산업이 강건하려면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포장업계의 발전이 기업을 성장시킵니다.

더 나은 앞날을 위해 본 협회에 가입하여 친목도모는 물론 애로사항을 협의하여

새로운 기술과 정보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포장업계에서 성장하기 원하시면 (사)한국포장협회로 오십시오.

(사)한국포장협회

TEL. (02)2026-8655~9

E-mail : kopac@chollian.net